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현황,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감소

○ 2006년 2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7건, 분규참가자수는 663명, 근로손실일수는 19,225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12건, 1,630명, 30,715일보다 크게 감소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일)

	2004. 2. 20	2005. 2. 20	2006. 2. 20
노사분규발생건수(개소)	9	12	7
분규참가자수(명)	20,023	1,630	663
근로손실일수(일)	49,562	30,715	19,225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확정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0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제외).
 - 피크시점의 분기임금보다 2006년 1분기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함.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원스톱 고용서비스 시행

- 금년 3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구직자들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해 왔던 직업훈련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하여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
 - 이와 함께 지역이 주체가 되어 수요자 중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지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함.
 - 위임되는 업무는 ‘사업주훈련·근로자훈련·실업자훈련의 훈련상담, 훈련과정 인정·승인, 비용지원’ 업무와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검정수수료 지원, 훈련비 및 학자금 대부’ 업무, 그리고 ‘훈련시설·장비 대부,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법인 허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업무임.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 노사정 공방

-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양대노총과 경총의 반발이 촉발됨.
 - 한국노총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비정규 법안이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여야가 상임위 통과안대로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지방선거 등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함.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강행처리에 반발하여 2월 28일과 3월 2일 각각 4만9천명(민주노총 주장 10만3천명), 6만2천명(민주노총 주장 18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여 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무효를 주장함.
 - 경총 또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힘.
 - 한편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문제는 4월로 연기되었음.

◆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선출

- 민주노총 제4기(6대) 임원선거 결과, 조준호 위원장이 당선됨.
 - 지난 이수호 집행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결과 기호 2번 조준호(위원장)·김태일(사무총장) 후보조가 350표를 얻어 51%의 지지로 당선되어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함.
 - 기호 3번 김창근(위원장)·이경수(사무총장) 후보조는 324표(47%)를 얻었고, 기호 1번 이정훈(위원장)·이해관(사무총장) 후보조는 사퇴하였음.
 - 부위원장으로는 윤영규, 이태영, 허영구, 김지희, 진영옥, 최은민의 6인을 선출

◆ 철도노조 파업

- 철도노조 3월 1일부터 4일간 파업 진행
 -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연금 불이익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쟁점을 놓고 파업을 진행하였고, 3월 2일 산개투쟁 돌입 이후 3월 4일 오후 3시 파업 중단을 선언함.

주요노동일지

(2006. 1. 23~2.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6.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조세연구원지부: 시한부 파업 종료 후 업무복귀 도시철도공사: 200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오리온전기 조합원 연행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 한국시멘트노조 파업 관련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2005년 임금협약 관련 중노위 조정안 수락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닉스반도체: 서울사무소 앞 농성조합원, 농성해제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노사 실무교섭 진전없이 종료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노동연구원: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하철노조: 본사 현관 앞 천막농성 자진 해제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전면복귀 성명서 발표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시 2·8 총파업 돌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철도노조: 2·7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일정 확정 예정 한국철도산업노조 철도유통본부: 임단협 및 사업권 위탁에 반발 쟁의행위 결의 서울지하철노조: 2·27 파업 돌입 등 향후 투쟁계획 확정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노총: 외환은행 독자생존 보장촉구 성명서 발표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노동연구원: 제3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 당초 상정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2·21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철도노조: 전국 5개 권역별 총력 결의대회 개최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1인시위 돌입 및 상경투쟁 예정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운수연대 4개 조직: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개최